

방진회 창립15주년 기념

방위산업 大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한국 방위산업진흥회가 창립15주년을 맞아 6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방위산업大토론회가 정부 관계인사 및 방산업체 임직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認識) 전환과 전환기의 방산육성정책 및 경영전략에 대해 官·學·産 各界의 의견을 수렴해보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총 3부로 나뉘어 6명의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식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新세계질서와 한국의 방위산업」을 주제로 하여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81년 일만에 최초로 공개된 「국내방산물자전시회」에 이은 10년만의 큰 행사로서 주목을 끌었으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실상 및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공개토론이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종합토론에서 羅柄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국내조달이 완전충족되고, 추가소요도 없으며, 뚜렷한 해결노력도 없는 오늘날의 현실속에서 防産의 역할을 재조명해보며, 그 주인을 똑바로 찾아야 하겠다는 애국적인 견지에서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羅柄扇 防振會 상근부회장은 일본이 5억불(개발비 제외)을 넘게 투자하여 통신위



성을 개발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우리 軍이 정보획득능력이 크게 미흡하고, 공군과 해군의 전력이나 무기체계도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크게 못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70년대의 화려했던 시절을 회고해보며 다시금 국가안보의 원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강구하며, 중화학공업 선도와 함께 기술개발의 선두주자로서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때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羅炳胤 부회장은 외국의 무기상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음을 간과(看過)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반도를 분쟁가능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종일관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李榮浩 박사 (국방부 군비통제실)

“이제 우리는 국가안보의 초석인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그동안 추구해왔던 첨단외무기체계와 장비 구입을 지양하고, 북한보다 동등하거나 다소 우위에 있는 무기체계와 장비 획득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축적된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黃東準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결프戰 이후 中東시장을 미국에게 빼앗긴 유럽의 방산업체들에게는 결국 한반도와 동남아가 표적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최근 美 국방부도 방산의 자금자족 의지를 포기했음을 주목하면서, 결국 우리도 제한적인 방위산업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며, 防振會를 통해 업계의 소리가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개개 업체가 국방부를 상대해야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白永勳 (KID 원장)

“21세기에 살아남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간선상에서 이제 제3의 역사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제 우리의 방위산업도 세계에 투망(投網)을 하면서 싸워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방산육성을 위해서는 통치차원에서 재주목(再注目)으로 방산업체 전 임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방위산업이 나아가야할 고도화,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함께 축적된 힘을 가지고 싸울수 있도록 방위산업의 기반 육성에 많은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세제(稅制) 및 금융상의 지원과 민간주도의 방위산업 육성체제 확립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鄭鎰碩 교수 (단국대)

『70년대이래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자유시장기능에 맡길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농업부문의 경우 국제시세보다 4.5배나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홀로서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체에 계약을 주면서 특권의식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또 업계는 이윤추구나 정부지원만 찾지 않았는지에 대해 지난 20년을 반성해보아야 하겠습니다.』

*安致瀚 사장 (金星精密)

“무기체계에 대한 長期비전의 제시와 함께 국방연구개발의 투자확대는 물론 정부지원,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의 발굴,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ROC요구의 합리성에 대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업체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일할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은 물론 지체상금 부과에서 협력업체가 있는 현실에 비추어, 주계약업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함께 70년대 ‘無’의 시대에서 15년간 축적된 방위산업의 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책이 검토되어 국가자원의 낭비가 되지않도록 배려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방위산업大토론회 기념 리셉션 성황...



李鍾九 국방부장관은 이날 리셉션에서 방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였다

防振會 창립15주년 기념 방위산업大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는 리셉션이 6월 21일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李鍾九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관련 인사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리셉션에서 李鍾九 국방부장관은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나 안보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밝히면서, 북한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UN가입을 비롯하여 여러 유화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미동(微動)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변환경속에서 우리의 방위산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비한 국가전력증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차 통일에 대비하여 주변열강에 대처할수 있도록 육성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어 李鍾九 장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이번의 방위산업大토론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카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며, 특히 이번 大토론회를 성대하게 추진한 방진회 柳繼佑 회장 및 羅柄扇 상근부회장 이하 임직원들에 대해 크게 치하하였다.

또한 이번 大토론회가 방산육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와함께 앞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함께 국내개발 위주로의 정책 전환, 산·학·연 합동연구개발팀 구성 등 적극적인 정책 뒷받침으로 방산업계가 다시금 활기찬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특히 李장관은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원한 우군이 없다”는 것이며,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이해관계뿐”이라고 역설하면서, 이를 통해서만이 관계가 유지될수 있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해외 防産 短信

PW-229엔진 3만2천1백파운드 추력 선보여...

우리나라 차세대전투기(KFP)로 선정된 F-16 전투기의 엔진부문 수주경쟁업체의 하나인 프랫 앤 휘트니(Pratt & Whitney)社의 F100-PW-229 성능향상형 엔진이 최근 실시된 성능향상 시험에서 32,100파운드의

추력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랫앤 휘트니의 F100계열 엔진은 전세계에 5천7백여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우리 공군의 기존 F-16을 포함, 전 세계의 모든 F-15기와 약 70%의 F-16기에 장착되어 있다.

국내 기술개발의 개가(凱歌)—— 金星精密, GLAS-830M 레이다 설명회 개최

금성정밀 은 6월 11일부터 3일간 평택공장에서 자체기술로 개발한 전술용 저고도 사격통제 레이다인 「GLAS-830M」의 설명회를 가졌다.

국방부 등 관련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설명회는 심춘보부장(금성정밀 방산기획1실)의 레이다 개발경위, 체계개념, 주요특징 및 구성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연구원들이 직접 그룹별기를 이용하여 장비의 작동상태를 시범보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선보인 GLAS-830M은 저고도 비행 항공기의 탐지 및 사격통제 기능을 보유한 최첨단 레이다 장비로서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에 적합하도록 국과연(ADD)의 기술지원아래 금성정밀이 자체기술로 개발한 것이다.

고도의 전자방해나 악천후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운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란 장점을 지니고 있어, 국가 대공방어체계 구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安致瀚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업체와 여러 차례의 기술도입생산에 참여해왔으나,



원제작사로부터 요소기술이나 생산기술의 이전이 극히 제한되고, 장차 전자전 상황을 고려할때 군용레이다의 자체생산 능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개발하였다』고 개발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安사장은 『GLAS-830M이 이 자리에 놓이게 되기까지는 '89년 성공적인 설명회를 가진 GLAS-830A의 개발을 포함, 7년이라는 기간과 많은 투자가 선행됐다』고 밝혔다.

